

제 4 장: 지역에 대한 사고

작성자: Tran Tung Ngoc (진송옥)

주요 내용

- 지역에 대한 접근 1
 - 비달 드 라 블라슈(Vidal de la Blache)와 프랑스의 지역지리학..... 2
 - 하트손(Hartshorne)의 지역학적 관점 3
 - 소련의 지역지리..... 3
 - 생물지역주의..... 4
- 지역에 대한 비판 5
- 신지역지리 6
- 비판 지역주의 7
- 결론 8
 - 「지역에 대한 사고」를 읽고 난 몇 가지 생각 8
- 토론 9

지역에 대한 접근

‘지역’이라는 개념은 지리학의 기초를 이루며, 인간이 지구 공간을 인식하고 이를 고유한 특성을 지닌 여러 구역으로 나누는 방식을 반영한다. 각 지역은 자연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분석 가능한 패턴을 이루는 하나의 통합체로 간주된다. 지리학의 사유를 2,000년 넘게 이끌어온 핵심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 둘째는 **공간적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은 ‘특수지리학’에서 지역 개념을 중심에 놓는다. 하지만 ‘지역’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는 더 큰 전체의 일부일 수도 있고 행정적·문화적 단위이거나 인간이 공간에 부여한 의미와 관련된 작은 단위일 수도 있다. **지역의 정의는 연구의 맥락과 목적에 크게 의존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각 지역의 고유성과 구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과학에서의 일반화 추구와 충돌할 수 있다. 어떤 지리학자들은 지역의 특성을 지리학의 근본으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보편적인 이론을 구축하는데 더 중점을 둔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은 **지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사회적 사고의 산물인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지역 내부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것도 의심받고 있으며 현대 지리학자들은 지역이 내부적으로는 분화되어 있고 외부와의 연결에 따라 형성된다고 본다. 세계화의 맥락에서 지역 간 경계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 지역주의’를 따르는 일부 학자들은 지역을 세계적 동질화에 저항하는 공간으로 본다. 반면, 지역이 보수주의나 극단적 민족주의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지역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특정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사회적 · 문화적 · 정치적 실체**이기도 하다.

비달 드 라 블라슈(Vidal de la Blache)와 프랑스의 지역지리학

폴 비달 드 라 블라슈(Paul Vidal de la Blache)는 19 세기 말에서 20 세기 초 프랑스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지리학자 중 한 명으로 프랑스 특유의 지역지리학 학파의 기초를 다진 인물이다. 그는 **세계를 특정한 지리적 공간인 ‘페이(pays)’**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 공간은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하여 고유한 **생활양식(genre de vie)**을 형성하는 곳이다. 비달의 지리사고에서 중심이 되는 개념인 ‘장르 드 비(genre de vie)’는 전통 · 건축 · 음식 · 농업 방식 · 신앙 등 문화적 요소 전반을 포함하며,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자연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삶을 조직해 나가는지를 반영한다.

비달은 당시 지리학계에서 널리 퍼져 있던 **환경결정론적 시각에 반대**하며, 그 대신 **‘가능론(possibilism)’**을 제안하였다. 그는 인간이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을 활용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지역 간의 차이는 단지 **자연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누적되어 온 **문화적·사회적 선택의 산물**이다. 이로 인해 유사한 자연조건을 가진 두 지역이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문화 형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프랑스 지리학 도해**(Le Tableau de la géographie de la France, 1908)』은 지리학에서 ‘지역 모노그래프(monograph)’의 전형을 제시하며 **한 지역을 기후 · 풍속 · 경제생활 등 모든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묘사하는 연구 전통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비달은 인문지리학에서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경관 그리고 지역 정체성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의 사상은 프랑스 지역지리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1970 년대 등장한 인간주의 지리학(humanistic geography)과 같은 현대 인문지리학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비달에게 있어 지역은 단순한 자연적 실체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인간의 선택이 어우러진 살아있는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하트손(Hartshorne)의 지역학적 관점

리처드 하트손(Richard Hartshorne)은 20 세기 전반기에 미국 지리학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한 주요 학자이며, 특히 『**지리학의 본질**(The Nature of Geography, 1939)』이라는 저서를 통해 그 공헌을 남겼다. 그는 지리학의 **핵심 과제가 공간적 차이**(areal differentiation), 즉 지표면상의 지역 간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하트손은 독일 지리학 특히 알프레드 헤트너(Alfred Hettner)의 영향을 깊이 받았으며, 지리학을 하나의 종합과학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코롤로지(chorology, 지역 연구)’** 개념을 발전시켰다.

그에 따르면, 지리학은 다른 학문들처럼 고유한 연구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 내에서 함께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을 다룬다. 이에겐 기후·지형·인구·산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지역(region)’은 지리학에서 중심 개념이며, 다양한 현상을 종합함으로써 하나의 구체적 공간을 전체성 속에서 이해하는 장소이다. 하트손은 계통지리학(systematic geography)의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리학 고유의 정체성은 지역지리학(regional geography)**을 통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지역지리학이 체계적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편향되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고 보았다.

비달 드 라 블라슈가 현지 조사와 문화 기술을 통해 구체적인 지역을 묘사한 것과 달리 **하트손의 접근은 철학적이며 방법론적이다**. 그의 목표는 지리학이 현대 지식 체계 속에서 과학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 그는 종종 개별적인 것을 다루는 기술적 과학(idiographic science)으로 간주되었지만 지리학은 구체성과 일반화, 기술(description)과 이론화(theorization)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트손에게 있어 지역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지리학이 세계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해 현상을 종합하는 접근 방법이기도 했다.

소련의 지역지리

소련의 지리학에서 ‘지역’은 단순한 연구 대상에 그치지 않고 **사회주의 체제에서 생산과 경제계획을 위한 도구**로 기능하였다. 1917 년 혁명 이후 지리학은 중앙계획경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었다. 레닌은 **환경결정론을 부정하고 인간은 과학과 합리적인 노동조직을 통해 자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리학자 니콜라이 바라닌스키(Nikolai Baranskiy)는 ‘경제 지역(economic region)’ 개념을 이론화하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개념은 자원·노동력·문화·기술이 통합된 영토 단위로 국민경제의 연결 고리로 작동하는 지역을 뜻한다.

소련 국가계획위원회(GOSPLAN)는 전체 국토를 21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경제 전문화 수준과 공간적 합리성에 따라 정의되고 조직되었다**. 대학의 지리 교육과 연구도 이

목적에 맞게 조정되었는데 경제지리의 최소 70% 이상이 지역 분석에 집중되었다. 이 학과는 지역을 담론에 의해 구성된 것이 아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 보며, **자원·노동력·생산 조건 등의 기준**을 통해 정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접근 방식의 **핵심 목표는 자본주의의 자발적이고 불균형한 발전을 대체할 과학적인 영토 분업 재조직**에 있다. 자본주의는 지리적 현실과 무관하게 왜곡된 생산 공간을 만들어내며 불균형적인 발전 중심지를 조장한다고 이들은 비판하였다. 반면, 소련의 지역지리는 **효율성·형평성·균형발전**을 지향하며, 지리학이 **사회주의 경제에서 실천적이고 정책 지향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생물지역주의

생물지역주의(Bioregionalism)는 **지역을 자연과 깊이 연결된 생태적·문화적 실체로 인식하는 접근 방식**으로 정치적·행정적 경계가 아닌 **강 유역·지형·기후·생물군과 같은 자연 요소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삶의 방식**에 의해 정의된다. 이 용어는 **1970 년대에 앨런 반 뉴커크(Allen Van Newkirk)**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이후 **버그(Peter Berg), 다스만(Ray Dasmann), 시인 게리 스나이더(Gary Snyder)** 등의 활동가들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전통적인 기술적 또는 경제 분석 중심의 접근과 달리 생물지역주의는 **생물지역(bioregion)**은 외부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환경과의 실제적인 삶의 경험 속에서 내부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지역은 생물학적 현실인 동시에 문화적·정신적 의미를 지니며, **공동체 생활·지역 정치·생태적 윤리를 구성하는 기반이 된다.**

생물지역주의는 현대 문명에 대한 저항적 색채를 띠는 경우가 많으며, **‘토착문화/장소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인위적인 경계와 세계화된 삶의 방식에 반대한다. 자율적인 지역 공동체 운영·자급자족적 삶·자연 존중 그리고 지역 생태계와의 조화를 중시한다. 이 사상은 때때로 원주민 공동체를 이상화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범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비록 지리학 내에서 정통 학파로 널리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생물지역주의는 생태운동·환경보호 활동·지역 정치 운동 등에서 깊은 영향을 끼쳤다. 이는 단순한 생태사상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한계와 규범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고 공간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를 제안하는 윤리적·사회적 패러다임이기도 하다.

기준	비달 드 라 블라쉬	하트슨	소련	생물지역주의
대표 인물 / 학파	폴 비달 드 라 블라쉬	리처드 하트슨	바란스키, 소련의 국가계획위원회 (GOSPLAN)	앨런 반 뉴커크, 베르그 & 다스만, 게리 스나이더
지역의 본질	독특한 생활양식(genre de vie)이 존재하는 곳 - 문화와 자연의 결정체	특정 장소에 존재하는 현상의 종합	계획 경제 내에서 생산의 지역 조직 단위	자연 생태와 지역 주민의 정체성이 결합된 생물지역 (bioregion)

분석의 초점	각 지역의 독자성, 풍습, 음식, 건축 등을 기술	공간적 차별화 (chorology)를 분석	자원, 노동, 문화를 고려한 생산의 합리적 조직	자연과의 밀착된 삶, 자치 공동체의 발전
인간의 역할	중심: 고유한 생활양식의 창조 주체	간접적: 현상을 종합하는 연구자	국가의 도구로서 계획의 자원	중심: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조율하는 존재
자연과의 관계	상호작용적, 자연결정론에 반대, 인간의 선택 강조	특정 지점에서 자연·사회 상호작용을 고찰	자연은 생산을 제약하지 않음, 경제적 효율을 위해 조정되어야 함	신성시됨, 윤리적 기반, 인간은 생태계에 순응하며 살아야 함
목표 또는 영향	인간지리학의 기반 마련, 자연결정론에 대한 비판	지리학을 종합 학문으로 정립, 학문 전체의 이론적 토대	노동 분업과 생산 계획의 최적화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적 자치와 지역 관리
이론성 / 과학성	인문학적, 서술 중심, 비공식적, 역사·문화적 깊이 반영	깊은 이론화 추구, 칸트 철학과 독일 지리학에 기반	매우 실용적, 정책 중심; 생산 지향	이론·정치·생태·영성이 결합된 낭만적 성향
지역 존재에 대한 관점	역사·문화·경관적 성격을 가진 인문적 창조물이나 안정된 특징 존재	공간 분석의 틀로서 지역, 고유한 장소로 존재	물질적 기준으로 경계 설정 가능한 객관적 실체	담론 이전의 객관적 존재, 생물학적 요소와 주민의 감각에 기반 - 특히 강 유역, 기후, 생물

지역에 대한 비판

20세기 중반부터 전통적인 지역지리는 특히 영국과 미국의 젊은 지리학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들은 지역지리가 시대에 뒤떨어졌으며, 설명력과 이론성이 부족한 단순한 기술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비판 지점은 다음과 같다:

- 지나치게 특수성에 집중함
- 일반화 능력이 부족함
- 현대 사회과학의 방법론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음
- 사회현상보다는 경관에 치중함

더불어 근대화와 세계화의 진행으로 인해 지역 간 경계가 흐려지면서, 지역을 하나의 동질적 실체로 간주하는 시각은 점점 의심받게 되었다.

지리학자 **밀턴 산토스(Milton Santos)**는 오늘날의 **세계 경제 구조 속에서 지역은 더 이상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며 외부로부터 규정된다**고 보았다. **레이 허드슨(Ray Hudson)** 역시 지역 간 차이는 본질적 특성이 아니라 **계급·성별·사회적 위계 같은 광범위한 사회적 힘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론 존스톤(Ron Johnston)**은 **지역지리를 단순한 경험주의로 간주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나 여행 안내서처럼 느껴지지만 “학문적 깊이는 부족하다”**고 비유하였다. 그러나 지역지리를 옹호하는 학자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존 프레이저 하트(John Fraser Hart)**는

지역지리를 “**지리학의 최고 예술 형식**”이라 보며 독자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생생하고 창의적이며 감성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요약하자면 전통적인 지역지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받았다.

- 일반화 부족, 명확한 이론 부재
- 설명보다는 묘사에 치우쳐 과학적 설명력 부족
- 구시대적 농촌 세계에 얽매어 있음
- 흥미롭거나 타당할 수는 있으나 학문적 야망이 부족하다는 평가

하지만 “지역”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존재하며, 전통과는 뚜렷이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신지역지리

1950년대 이후 전통적인 지역지리가 쇠퇴하면서 1980년대를 기점으로 “신지역지리(New Regional Geographies)”라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였다. 이는 **정치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구조화 이론(structuration theory)과 시공간 개념 같은 현대 사회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이 접근은 ‘지역’을 자연에 본래 존재하는 실체로 보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문화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구성물**로 간주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역은 단순한 결과물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자 불평등한 권력구조(계급·성별·인종 등)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장치**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영국의 북남 지역 구분은 단순한 경제적 차이일 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차별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허드슨(Hudson), 길버트(Gilbert), 우즈(Woods), 파아시(Paasi) 같은 지리학자들은 지역이 본질적 속성을 가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되어가는(becoming)’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웨식스(Wessex)”나 “파다니아(Padania)” 같은 지명은 정치적·문화적 상상과 담론이 지역을 ‘현실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지역은 내부 요인만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자본 흐름, 이주, 글로벌 정책과 같은 초국가적 흐름에 의해 구성된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영토 중심적 지역 개념은 관계적 접근(relational approach)으로 대체되었다. 즉 지역은 더 이상 고정된 경계로 정의되지 않고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유동적인 공간**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이론적 전환과 함께 **국가 권력의 ‘공백화’(hollowing out)** 현상이 심화되며 현실 정치에서도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의 부상이 나타났다. 스코틀랜드, 콘월(Cornwall), 이탈리아의 레가 노르드(Lega Nord)와 같은 지역주의 운동은, 지역 정체성이 더 이상 낡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파아시(Paasi)와 아민(Ash Amin)은

“경계를 고정하는 시각을 넘어 글로벌한 흐름과 초지역적 네트워크 속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공간 구조가 형성된다는 ‘연결의 정치’(politics of connectivity)”를 주장한다.

예컨대 영국 남동부 지역은 극단적인 부와 빈곤이 공존하며, 동시에 금융위기나 이주와 같은 글로벌한 흐름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사례는 지역을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공간적 구조’(spatio-temporal structure)”로 이해해야 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신지역지리는 연구 방법론을 혁신했을 뿐 아니라 **복잡한 사회 과정과 세계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지리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비판 지역주의

비판 지역주의는 건축 비평가 **케네스 프램프턴(Kenneth Frampton)**이 제안한 개념으로 후기 현대 도시 건축과 경관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강요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하였다. 프램프턴은 현대 도시들이 토지 투기·자동차 중심주의·시각 중심의 단조로운 미학 등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그 결과 건축이 마케팅과 사회 통제를 위한 ‘가면’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맞서 그는 현대적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지역의 빛·지형·재료 등 고유한 요소를 활용하여 ‘장소에 뿌리내린 공간’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판 지역주의는 **민속적 향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자기반성적인 태도 즉 지역성과 세계성을 아우르는 건축을 제안한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보편성과 특수성 간의 ‘중개’이며, 또한 **촉각·청각·후각 등 감각의 복원**을 통해 서양의 원근법적 시각 중심 사고에 균형을 부여하고자 한다. 프램프턴은 건축이 환경과의 ‘친숙한 감각’을 파괴해서는 안 되며, 건축의 형태는 장소와 재료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지역’ 개념이 오용될 경우 낭만적이거나 반동적인 수사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비판적 지역주의는 단순한 지역주의와 달리 현대화를 수용하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편성과 특수성, 글로벌 공간과 지역 공간 사이의 긴장은 지역 지리에 대한 보다 넓은 담론의 핵심**이다. “지역”이라는 개념을 고수하면서도 보수주의나 고립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데이비드 매틀리스(David Matless)는 저서 『지역서 The Regional Book』에서 이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제시하였다. 그는 이론적 추상보다는 이미지와 세부 묘사로 가득 찬 문장을 통해 Norfolk Broads의 **풍경을 재현하며, 지역 묘사를 ‘존중에 기반한 관찰’이자 장소에 대한 감성적 연결을 회복하는 행위로 보았다**. 프램프턴에서 매틀리스까지 비판 지역주의는 단순한 건축 양식을 넘어 공간에 대한 사유와 감각의 방법론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현대화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에 대한 진정한 애착을 회복하고, 묘사와 창조를 통해 세계화 속에서 잊혀진 지역의 감각을 되살리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결론

결론적으로, 비판적 지역주의는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근본적 긴장을 중심에 둔다. 이는 지역지리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중심적인 문제였다.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어떻게 ‘지역’이라는 개념을 고양하면서도, 향수나 폐쇄성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비판적 지역주의는 지역 정체성에 고정되지 않고 장소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갖춘 지역 공간을 구성하려는 시도로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즉 이는 전통에 퇴각하지 않으면서도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애착과 감각을 회복하려는 노력이다. 데이비드 매틀리스(David Matless)의 저서 『지역서 The Regional Book』는 이에 대한 창의적 접근을 보여준다. 그는 지역 묘사를 보수적 행위로 보지 않고, 세부·감정·집중력에 기반한 미적 실천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실천은 세계화 시대의 지역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새롭게 조명하며, 잊혀진 공간을 되살리는 하나의 저항적 행위로 기능한다. 이처럼 지역을 쓰고 묘사하고 상상하는 행위 자체가 지역 공간을 재구성하고 재생시키는 정치적이고 미학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사고」를 읽고 난 몇 가지 생각

지역지리에 대한 소련의 접근 방법은 특히 1975년 통일 이후 계획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던 시기 베트남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소련은 공간경제를 지역 단위로 조직한 선구적 국가로 지역을 자연·자원·노동력·문화·기술이 통합된 고차원의 단위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생산 복합체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러한 모델은 베트남의 지역 개발 정책에 뚜렷이 반영되어 커피 재배 중심지인 띠에응우옌 고원지대, 쌀 생산 중심지인 메콩강 삼각주, 광물 자원의 중심지인 동북 지역 등 주요 경제 지역들이 형성되었다. 교육 측면에서도 1960년대부터 소련의 지역 중심 경제지리 교육 방식이 베트남 대학에 도입되었다. 발전에 대한 사상 면에서 소련은 자연환경이 인간의 발전을 결정한다는 관점을 거부하였고 베트남 또한 수리화 사업이나 산림 개간 등 자연을 개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사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행정 구역 구성과 국토 개발 계획 또한 소련 지역지리학의 영향을 받아 베트남에서는 행정·군사 구역 및 경제 중심 지역 등과 같은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실제 존재하는 통합적 계획 단위로서의 ‘지역’이라는 사상은 수십 년 동안 베트남의 국토 공간 개발 이론과 실천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해왔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이후, 베트남을 포함한 탈소련 국가들에서 지역지리에 대한 관점은 크게 변화하였다. 중앙집권적 계획 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전환된 것이다. 일부 지리학자들은 여전히 지역이 객관적 실체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동시에 지역의 유동성, 변화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맥락의 영향을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의 지역 연구는 자연·사회·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합하며 다학제적이고 학제 간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지역지리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며 정치·행정적 도구에서 보다 유연하고 복합적인 분석을 지향하는 학문 분야로 전환되었다. 소련 시기의 경직되고 집중된 지역지리 개념은 점차 탈피되어, 지역을 역동적이고 연계된 사회-역사적 과정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로 대체되고 있다.

토론

1. 비달 드 라 블라슈(Vidal de la Blache)의 “생활양식(genre de vie)” 접근법을 한국의 지역 분석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각 도나 지역은 고유한 “경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현재의 행정·경제 구역 구분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중공업이 전라도가 아닌 경상도에 집중된 이유는 자연·경제·사회적 조건 때문인가요 아니면 정치적 의도나 개인적 감정도 작용했을까요?
3. 한옥 마을 보존 운동과 최근 새롭게 조성된 한옥 마을들이 비판 지역주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을까요? 이는 도시 공간의 세계화와 획일화에 대한 저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4. 생물지역주의는 한국 사회에서 적용 가능한 개념일까요? 한국 내에서 ‘생물지역’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역이 있을까요?
5. 귀농·귀촌 운동이나 지역 축제·문화행사 활성화와 같은 한국의 지역 회복 움직임은 ‘지역으로의 회귀’라는 욕망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향수와 낭만주의인가요, 아니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일까요?
6. 한국의 문학·영화·음악 또는 온라인 게임 속에 지역 정체성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을까요?